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33-88  
<https://doi.org/10.29212/mh.2022..124.3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1812년 평안도 정주성 전투의 경과 및 관군과 반군의 역량 비교

강석화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 목 차
1. 머리말
  2. 반군의 정주성 점거
  3. 전투의 경과
  4. 관군과 반군의 역량 비교
  5. 맺음말

**초 록** 흥경래란은 1811년 12월 18일에 시작하여 1812년 4월 19일에 종식되었다. 정주성 전투는 1811년 12월 29일부터 1812년 4월 19일까지 전개되었으며, 흥경래란 전 시기의 대부분은 정주성 전투의 기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주성 전투의 전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관군과 반군의 역량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총공격을 펼친 관군은 신무기 윤차를 이용하여 성을 공격하였으나, 반군 역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윤차를 파괴하였다. 오랜 포

위 때문에 식량과 무기가 부족해진 반군은 과감한 출성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반군이 항복하지 않고 오래 버티자 관군은 성벽을 폭파한 후 진입하여 생존한 인원들을 모두 생포하였으며, 이들 중 여성과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성인 남성 1,917명을 전부 처형하였다.

관군의 지휘부는 몇몇 예외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투 지휘나 군사 역량 발휘에 무능하였고, 병사들의 전투력 역시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다. 관군은 야간에 전투를 시작하면서 공격 기도를 감추지 못하였고 공성도구는 정교함이나 견고성이 떨어져 쓸모가 없었으며, 한양의 훈련도감에 보관된 홍이포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에 비해 반군은 식량과 무기 부족으로 결국 실패가 예정된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방어 도구를 개발하여 이용하면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 성을 지켜내었다. 관군이 결국 성을 점령하였으나 관군의 승리라기보다는 이미 자멸한 반군의 마지막 숨을 끊은 것이었다.

본 연구는 흥경래란이나 정주성 전투에 관해 기존 연구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군사적 관점에 입각한 접근과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는 흥경래란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실증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흥경래란, 정주성 전투, 평안도, 정주, 반란, 윤차(輪車), 조총, 대포, 굴토작업, 폭파작업

(원고투고일 : 2022. 6. 16, 심사수정일 : 2022. 8. 15, 게재확정일 : 2022. 8. 30.)

## 1. 머리말

1811년(순조 11) 12월 18일<sup>1)</sup>에 평안도 가산 다복동의 봉기로 시작하여 1812년(순조 12) 4월 19일에 정주성에서 진압된 홍경래란<sup>2)</sup>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sup>3)</sup> 그러므로 난의 정치·사회·경제적 배경과 원인, 경과와 진행,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경래란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반란군과 관군의 군사적 충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sup>4)</sup> 안주 송림리 전투, 용천성과 관산 쟁탈

1) 본 논문의 월일(月日)은 모두 음력임.

2) 홍경래란은 지역명과 역사적 의미를 함께 표시한 “평안도 농민전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홍경래란”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3) 홍경래란에 대한 기왕의 연구 중 정석중의 논문과 고석규, 오수창, 김선주 등의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다.

정석중, “홍경래란” 『창작과 비평』 7(3)(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2):620-680

정석중, “홍경래란의 성격” 『한국사연구』 7(서울, 한국사연구회, 1972): 151-206

정석중, “홍경래란” 『전통시대의 민중운동』 풀빛(1981): 259-315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 사회 연구 - 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오수창, 『조선 후기 평안도 사회 발전 연구』 (서울, 일조각, 2002)

김선주, 『조선의 변방과 변란, 1812년 홍경래란』 (서울, 푸른역사, 2020)

정석중의 일련의 논문은 1979년에 영인 간행된 『관서평란록(關西平亂錄)』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의 앞머리에 실린 자료 해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홍경래란의 배경과 원인, 봉기에서 진압까지의 경과, 성격과 영향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창작과 비평』에 수록된 논문을 주로 참고하였다.

기존 연구 논저 목록은 김선주의 저서에 실린 논저목록 참조(김선주, 같은 책, pp.318-327). 김선주의 연구에 수록된 논저 목록에는 홍경래란에 직접 관련된 연구 논문은 물론 평안도 지역의 상황 및 평안도 지역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4) 정주성 공방전에 참가한 진압군은 중앙에서 온 순무영 직속 병력, 평양과 안주를 비롯한 평안도 각 읍에서 동원된 관병, 의주 등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의병 등 세

전, 정주성 농성전 등 주요 전투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도 주요 전투의 경과나 승패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난의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취급하여 사료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고 있을 뿐, 반군과 관군의 상황, 전황의 전개, 승패 요인 등에 대한 세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sup>5)</sup>

본 연구는 홍경래란의 최후 전투인 정주성 공방전에 대해 분석한 글이다. 정주성 전투는 1811년 12월 29일부터 1812년 4월 19일까지 110일간 전개되었으며 홍경래란의 전 기간 중 대부분은 정주성 전투의 시간이었다. 이미 기존의 연구를 통해 정주성 전투 당시 관군과 반군의 상황, 전투의 전개 양상, 관군의 정주성 폭파와 점령, 생존 인원 전원 참살 등 사건의 전개에 대해서는 대강의 사실이 밝혀져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 시기별 전투 양상의 변화, 관군과 반군의 역량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sup>6)</sup>

---

가지 유형의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영이라 불린 순무영 병력, 평안도 각 읍의 관병, 의병들은 부대별로 구성과 지휘체계, 전투력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1812년 1월 11일 이후 순무중군 겸 평안병사를 총지휘관으로 하는 지휘 체계가 마련되었으므로 부대나 지휘관별로 나누어 보지 않고 관군으로 통칭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홍경래를 비롯한 반란 세력의 군사들도 모두 반군이라 칭하였다.

- 5) 기존 연구에서 홍경래란 당시의 주요 전투에 대한 서술은 난의 경과 과정에 대한 설명 중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전투의 개황에 대해서는 정석종의 연구와 이병도의 글이 참고가 된다(이병도, “홍경래란과 정주성도” 『백산학회』 3(서울, 백산학회, 1967: 381-400). 특히 정석종의 연구에서는 안주 송림리 전투에서 관군이 승전한 요인과 반군이 패전한 요인을 제시하였다.
- 6) 본 연구에서는 정주성 전투의 개괄적인 경과는 정석종과 이왕무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으며, 『서정일기』와 『진중일기』, 『관서평란록』 등의 사료를 이용하여 전투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관군과 반군의 역량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석종, “홍경래란” 『창작과 비평』 7(3)(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2):620-680. 이왕무, “홍경래란의 진압과정”(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편, 『한국군사사』 8-조선후기 II-, 서울, 경인문화사): 395-428.

홍경래란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사회사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데 비해 이왕무의 연구는 군사적 시각에서 난의 전개 및 정주성 전투의 경과를 자세히 정리하여 군사사적인 의미가 크다.

논지 전개를 위해 우선 정주성 전투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였고, 전투 과정에서 드러난 관군과 반군의 역량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흥경래란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거나 19세기 초 조선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며, 정주성 전투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군사사(軍事史) 측면에서는 18세기 말, 19세기 초 조선의 군사 기술 수준과 군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sup>7)</sup>

---

사료 중 『서정일기』와 『진중일기』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탑재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http://db.history.go.kr/>), 『관서평란록』은 1979년에 영인 간행된 자료를 이용하였다(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관서평란록』 v.1-v.5,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9). 『관서평란록』을 인용할 경우에는 “『평란록』 제○책, 연월일(『관서평란록』 v.○, p.○)”의 형식을 취하였다.

- 7)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초에 수입되어 널리 보급되었다고 알려진 명 모원의(茅元儀) 작 『무비지(武備志)』의 내용을 관군이나 반군이 전투에 얼마나 적용하였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무비지』의 보급에 대해서는 노영구, “정조대 병서 간행의 배경과 추이”, 『장서각』 3(2000): 65 참조). 『무비지』의 편명 중에는 ‘공성편(功成編)’과 ‘수성편(守城編)’이 있고 관군 주요 지휘관 방우정은 공성작전에 참고하기 위해 무비지 공성편 필사본을 순무영 본영에 요청하여 받아 이용하였다(『서정일기』 1월 17일, 25일 기사 참조). 그러므로 『무비지』는 정주성 전투 당시 관군 측의 주요 참고서였음을 알 수 있다. 반군 측의 사정은 알 수 없으나 평안도는 대청 무역과 직접 관련된 곳이며 청에서 수입된 주요 서적들이 지나는 경로였다. 그러므로 평안도의 인사들은 이러한 서적을 접할 수 있었고 필사도 활발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흥경래란의 핵심 세력인 평안도 향반층이라면 『무비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내용 역시 알고 있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이화여대 박민수 교수와의 대담에서 시사를 받은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2. 반군의 정주성 점거

1811년(순조 11) 12월 18일에 평안도 가산 다북동에서 봉기한 홍경래의 반군은 가산, 광산, 정주, 박천, 선천, 철산, 구성, 태천, 용천 등 청천강 이북 북쪽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였다.<sup>8)</sup> 그러나 반군 세력 중 평양으로 향하던 홍경래 휘하의 군사들은 평안 병영이 있는 안주를 공략하지 못하였으며 12월 29일 안주성 밖의 송림 전투에서 평안 병영 직속 군사 및 지역 의병 연합세력의 기세를 당하지 못하고 패배하였다. 이후 이들은 기세가 꺾여 정주성으로 이동하여 거점으로 삼았다. 의주로 향하던 김사용 부대 역시 관군에게 패한 후 후퇴하여 정주성에 합류하였다.

관군은 송림 전투 이후 주변 지역 주민들을 반군 일당으로 몰아 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 소각하느라 지체되어 반군의 주력 부대를 포착·섬멸하지 못한 채 뒤늦게 반군을 추격하였다.<sup>9)</sup> 1812년(순조 12) 1월 3일에 정주성 외곽에 이른 관군은 평안병영(안주)의 병마우후 이해승(李海昇), 숙천부사 이유수(李儒秀), 함중부사 윤옥렬(尹郁烈), 순천부사 오치수(吳致壽), 광산군수 이영식(李永植)과 휘하 병력들이었다. 이들은 1월 3일에 정주성 남문 밖 남산에 진을 설치하였다가 성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 역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동쪽으로 5리 정도 떨어진 달천 건너 이횡산(二橫山) 아래

8) 반군의 봉기에서 정주성 입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석중, 이병도, 이왕무의 글을 참고하여 서술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쓰인 이왕무의 글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다(이왕무, 앞의 글: 404-417). 이 글 중 안주 송림전투의 관군을 중앙과 지방의 관군 연합군이라고 지칭한 것은 오류다. 당시 중앙군은 아직 평안도 지역까지 이르지 못한 상태였다.

9) 송림전투 후 관군이 벌인 지역민 학살과 약탈행위는 인접 지역 주민들이 관군을 피해 반군을 따라 정주성에 다수 입거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정석중, 앞 논문: 648).

이언평(伊彦坪)에 주둔하였다. 여기에 평안감영(평양)에서 보낸 순중군(巡中軍) 이정회(李鼎會)와 휘하 병력이 합류하였다.<sup>10)</sup>

정주성은 평양에서 안주를 거쳐 의주로 이어지는 의주대로에 연결해 있으며 북쪽으로 구성(龜城), 동북방향으로는 태천(泰川), 서쪽으로 곽산(郭山), 동쪽으로 가산(嘉山)과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이다(<그림 1> 『동여도(東輿圖)』에 나타난 정주성의 위치).

성의 동쪽에는 달천강(撻川江)이 흐르고 이 위에는 달천교가 있다. 서쪽에는 서정천(西亭川)과 휴천(鵠川)이 있고 이 두 냇물이 합류하여 남산천(南山川)을 이루며, 남산천과 달천은 성 서남쪽에서 모여 서해로 유입된다(<그림 2> 정주지도(定州地圖)<sup>11)</sup>).

정주성은 석성이며 1715년(숙종 41)에 완성되었다.<sup>12)</sup> 성의 둘레는 4,680보(13리), 높이는 15척이며, 포혈(砲穴; 銃眼) 3,070개소, 사혈(射穴) 1,026개소, 치첩 1,026개소, 포루(鋪樓) 21개소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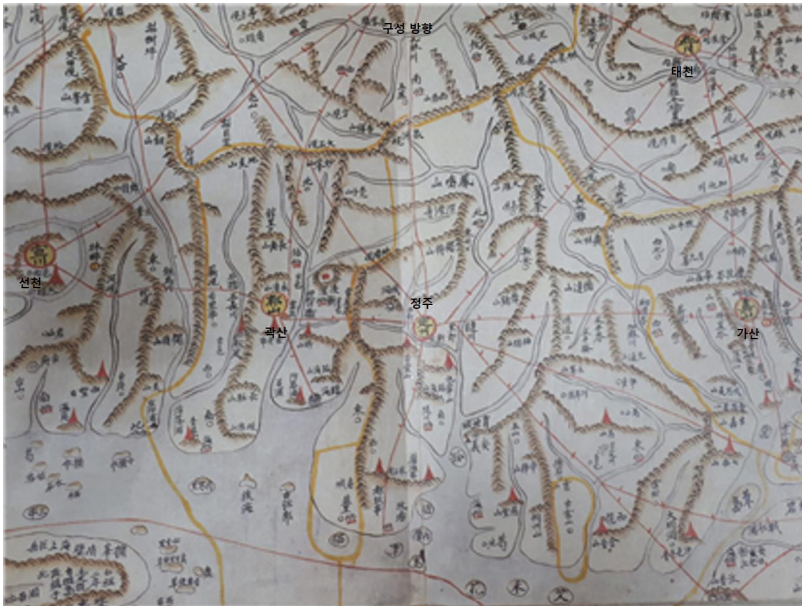
10) 홍경래란을 진압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양서 순무영(兩西巡撫營)을 조직하였으며 (1811년 12월 24일 『순조실록』 순조 11년 12월 24일 무진) 이요헌(李堯憲)을 양서 순무사로 임명하고 박기풍(朴基豐)을 중군에 임명하였다. 박기풍은 관군의 현지 지휘관이 되었는데 순무중군이라 불렸다. 당시 관찰사가 주재하는 감영을 순영(巡營)이라 칭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감영에서 보낸 군사 지휘관은 순중군(巡中軍)이라 불렸다. 순영중군과 순중군은 직책도 다르고 해당 관원 역시 각각 별도의 인물이었지만 용어가 유사하여 사료나 연구 논저에 이를 혼동한 경우도 나타난다. 이병도의 논문에서 평안도 병력들이 둔취한 곳에 “순무중군 이정회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합진하였다.”(이병도, 앞의 논문: 385)고 한 것은 순중군과 순영중군을 구별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대표적 착오이다.

11) 『정주지도(定州地圖)』(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소장,奎 10568)는 홍경래란 진압 후 60년이 지난 1871년(고종 8)에 작성된 것이지만 기본적인 지형 지물에 대한 정보는 충실히 수록되어 있으므로 정주성의 지리적 상황과 성첩, 성문 등에 대한 설명은 본 지도에 의거하였다.

12) 정주성에는 애초에 둘레 9,700척에 달하는 토축이 있었으나 김응서(金應瑞)가 목사로 재임하던 17세기 초에 규모를 줄여 개축하려 하였고, 1714년(숙종 40)에 목사 이삼(李森)이 석성으로 쌓는 공사를 시작하여 1715년에 목사 김수(金洙)가 완성하였다(『정주목읍지(定州牧邑誌)』,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읍지』 15 평안도 2,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6: 232-233). 정주성의 방어시설에 대한 내용은 읍지 자료에 의거하였다.

방어시설이 있었다. 성문은 동서남북 각 1개소와 소서문(小西門; 서문과 남문 사이) 등 5개가 있고 모두 문 위에 포루가 설치되어 있었다. 수구(水口)는 3개소였다.

<그림 1> 『동여도(東輿圖)』에 나타난 정주성의 위치



성벽은 대부분 능선을 따라 축조되어 있으며 북쪽면이 가장 높았다. 성 내외를 관측하면서 지휘할 수 있는 장대(將臺)는 북서 두 곳에 있었으며, 북장대는 최북단 성벽 위에 있었고, 서장대는 서문 안쪽에 있었다. 동문과 남문 쪽에는 별도의 장대가 없었다. 북문과 동문, 서문 모두 지형이 험한 곳에 있었고, 개활지에 해당하는 곳은 남문 뿐이었으나, 밖으로 웅성으로 방비되고 있었다. 서문에도 웅성이 있었다(<그림 2> 정주지도 및 <그림 3> 정주성공함작전도<sup>13)</sup>).

지형과 시설을 볼 때 정주성은 전형적으로 공자(攻者)에게 불리하

고 방자(防者)에게 유리한 곳임을 알 수 있다. 관군이 정주성을 공격할 때에 특정 장소나 성문을 공격 목표로 삼지 못하고 매번 전면 공격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이러한 지형적 제약 때문이었다.

<그림 2> 『정주지도(定州地圖)』



13) <정주성공함작전도>는 이왕무, 앞의 글: 413에 수록된 것이다.

<그림 3> 정주성공합작전도



성을 차지한 반군은 성 안의 사창, 신창, 승창 등 창고의 정곡 2,500여 석, 피잡곡 1천여 석과 주민들 소유 곡식을 징발하여 군량으로 삼았다. 성내에는 우물이 9개소 있었고, 이 중 6개소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곳이었다.<sup>14)</sup>

홍경래 등 지휘부는 서장대 부근에 자리하였고, 북장대 일대의 요해처에는 정예 병력을 배치하였다.<sup>15)</sup> 반군은 주력을 이루는 가산과 박천 출신 인원들 뿐 아니라 성내의 주민들까지 동원하여 수성군을 편성하였다. 이에 저항하거나 불응하는 주민은 가족들까지 모두 살해하겠다고 겁박하였으므로 주민들은 반군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sup>16)</sup> 외곽 방비를 위해 성 주위에 능철을 널리 살포하여 인마의 접근을 차단하였고, 주변 지역의 민가들을 불태워 관군이 의지할 거점을 제거하였다. 야간에는 성 주위에 불을 밝혀 공격군이 은밀히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주간에는 성벽 위에 병력이 매복하고 있다가 가까이 오는 적이 있으면 사격을 가하였다. 성 밖에도 첩자와 정보원들을 보내 관군의 동정을 파악하였다. 성을 출입하는 반군들은 은편(銀片)으로 만든 부절을 가지고 서로 신원을 확인하였다.<sup>17)</sup>

14) 『평란록』 제 9책, 임신(1812) 1월 25일(『관서평란록』 v.2, p.518, 정석중, 앞 논문, p.192,에서 재인용). 『정주읍지』에는 우물이 4곳이라 하여 이 내용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물의 수와 무관하게 성내의 인원들은 식수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이는 반군이 장기간의 포위를 견디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15) 『서정일기』 임신 1월 11일

16) “적진중 본주(정주)의 군사는 비록 성을 넘어 도망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가산 박천 두 곳에서 들어온 적도들이 성안에 많이 있어 성을 넘으려다가 잡힌 사람이 있으면 참하러 하고 있습니다.(賊陣中本州賊軍 雖有越城逃避之心 嘉博兩邑賊軍等多入城內 欲捉越城者而斬之)”(『평란록』 제 9책, 임신 1월 25일(『관서평란록』 v.2, p.519)

“익장 이성향이 군병들을 단속하며 이르기를, ‘주야로 잠들지 말고 수상한 행적을 상세히 살피라. 만약 한 놈이라도 성을 넘어 나가면 그 가족들을 찾아내어 한꺼번에 죽여버리겠다.’고 매번 위협 공갈하였을 뿐더러(翼將 李成恒 檢束軍兵曰 晝夜不寐 詳察殊常之跡 倘一漢越城 則查出其家屬 一時盡戮之意 每每威喝除良)”(『평란록』 제 15책, 임신 2월 11일, 『관서평란록』 v.4, p.220)

17) 『서정일기』 임신 1월 11일

### 3. 전투의 경과

홍경래란 때의 정주성 공방전은 반군이 정주성에 들어간 1811년 12월 29일부터 관군이 정주성 북쪽 성벽을 폭파하고 돌입하여 반군을 완전히 진압한 1812년(순조 12) 4월 19일까지 110일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 전투는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째, 관군과 반군의 전력 탐색기(1811.12.29.~1812.1.14.)
- 둘째, 관군의 적극적인 공세 시기(1812.1.15.~1812.3.7.)
- 셋째, 반군의 출성공격과 퇴로 모색기(1812.3.9.~1812.4.3.)
- 넷째, 관군의 정주성 폭파 및 진압 완료(1812.4.3.~1812.4.19.)

전반적인 전황을 보면 관군은 정주성 공방전 기간 내내 적극적인 공성작전을 추진하였고, 반군 역시 관군 제어와 전력 분산, 자신들의 사기 진작과 소요 물자 확보를 위해 수시로 출성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때문에 전투의 양상을 기준으로 한 시기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방전 전기간 동안 전황의 변화, 관군과 반군의 상황, 양측의 전술 등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러한 시기 구분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가. 상호 전력 탐색

정주성을 점거한 반군이 전력을 정돈하고, 반군을 추격한 평안도 병력들과 중앙에서 파견된 순무영의 전력이 합세하여 포위망을 형

성하는 과정에서 양측은 상대의 전력과 장단점 파악을 위해 정찰과 관측, 소규모 전투를 벌였다.

1812년 1월 3일 정주성 부근에 도달한 평안도 관·의병 연합군은 1월 5일에 정주성 동문을 공격하였다. 이 날 순영(평안감영) 비장 제경욱과 휘하 병사들은 도끼로 동문을 찍어 부수려 하였으나 성안에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반군의 공격으로 3명이 전사하고 17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sup>18)</sup>

평안도 관·의병 연합군이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무중군 박기풍이 이끄는 경군 병력이 1월 10일에 도착하여 관군의 전력은 강화되었으며 박기풍은 경·향 연합군의 총지휘권을 장악하였다. 경향연합 관군이 진영을 재정비하는 동안 고급지휘관들은 성에 접근하여 수비 상태를 파악하려 하였다. 그러나 반군의 관측과 위협 사격으로 성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이들은 성의 지리적 여건이 방어에 유리하며 반군의 수비 태세 역시 견고하게 잘 갖추어져 있음을 파악하고 복귀하였다.<sup>19)</sup>

성을 쉽게 함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관군은 우선 선무공작을 시도하였다. 1월 12일 반군 핵심인물 김이대의 아들 김치적과, 앞서 체포한 반군 일당 승신묵으로 하여금 효유서를 가지고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sup>20)</sup> 뒤이어 관군은 병력을 다수 동원한 위력 정찰을 감행하여 성을 포위하고 위세를 보이면서 반군의 동정을 살피려 하였다.<sup>21)</sup>

18) 평안도 관의병연합군의 정주성 최초 공격일자는 사료에 따라 달리 기록되어 있다. 『관서평란록』에는 1월 5일, 『서정일기』에는 1월 7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투 당일의 사정을 보고한 첩보를 수록한 『관서평란록』의 기록이 추후에 현장에 도착하여 앞서 있었던 전투에 대해 전문(傳聞)한 내용을 적은 서정일기의 기록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여 제경욱이 이끈 부대의 정주성 동문 공격일자는 1월 5일이라 판단하였다.

19) 『서정일기』 임신 1월 10일.

20) 『서정일기』 임신 1월 12일

21) 선무공작과 위력 정찰의 효과는 곧바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을 몰래 빠져

다음으로 관군이 시도한 것은 위협 포격과 공격 위협이었다. 1월 13일에 관군은 대완구포를 남문 밖에 설치한 후 포격을 가하였다. 폭발이나 화염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관군은 비격진천되는 사용하지 않고 석환(石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포격으로 성첩과 여장 두 곳을 파괴하였고 성 안으로 날아들어간 포탄도 있었으나, 성 안의 반군은 일체 동요하지 않았고, 관군은 포격의 효과를 파악하지 못하였다.<sup>22)</sup> 일정 시간 동안 포격을 가한 후 관군은 동문과 남문 방향으로 공격대형을 취하고 일제히 진군하였다. 관군은 총을 가진 인원들이 모두 성을 향해 사격하고 북을 울리고 고함을 질러 위력을 과시하였으나 실제 성벽을 오르려 시도하거나 성문에 접근하지는 않았다. 수비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전이었기 때문이다. 반군도 이에 상응하여 깃발을 휘두르며 북을 울리고 햇불을 더해 위세를 보였으나 역시 관군측을 향해 사격하지 않았다. 이 날 관군이나 반군 모두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나. 관군의 적극 공세

관군은 1812년 1월 15일부터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관군의 총지휘관 순무중군 박기풍은 1월 14일 밤에 <표 1>과 같이 관군 여러 지휘관들과 각 부대의 공격 목표를 지정하였으며 명을 받은 관군은 1월 15일 새벽에 일제히 공격을 개시하였다.

---

나와 항복한 반군이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서정일기』 임신 1월 13일

<표 1> 관군의 공격제대 편성표(1812년 1월 15일)

공격목표 (역할)	지휘관 및 담당 군영	주요 공성 무기 및 입무	비고
지휘 통제	중군 박기풍 비장 조익풍·민치익 행군집사 사의관·조경린, 배행집사 박치대 별무사 김우적, 이문주 <sup>23)</sup> 및 휘하 군병	후방에서 지원	
북문 <sup>24)</sup>	좌초관 방우정 숙천부사 이유수 순무영 군관 손태영·김계택, 전오 위장 김대택 별무사 정의진 및 휘하의 군병	층계(層梯)	
동문	과총 윤지겸, 중초관 한석윤, 순영중군 이정희, 차관 신명렬 및 휘하의 군병	층계(層梯)	
남문	정주목사 서춘보 별정집사 장중령 차관 정계식 전우후 제경옥 및 휘하 군병	시초, 유황, 화약 등	화공 시도
소서문	초관 이기정 <sup>25)</sup> 박천군수 이운식 차관 매경은 및 휘하의 군병	층계(層梯)	
서문 외곽	차관집사 이동은과 마군		서문 밖 10리 지점에 매복

23) 1812년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된 관군의 총공격 때 차수별 공격제대 지휘관의 직책과 성명을 정리한 <표>는 모두 『서정일기』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각 표마다 근거 자료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음). 1차 공격의 제대 편성에 대한 순무영 첩보에는 서정일기의 기록과 달리 조익풍, 민치익, 김우적, 이문주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24) 『서정일기』에서는 북문 공격이라 하였으나 순무영에 보고한 내용에는 동쪽과 북쪽 사이라고 하여 서로 차이가 있다.

25) 초관 이기정은 『서정일기』에 따르면 최초 공격제대 편성시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순무영 첩보에는 누락되어 있다.

여명에 달천 동쪽의 숙영지에서 출발한 관군은 폭설을 무릅쓰고 이동하여 달천교를 건넌 후 부대별 공격 목표를 향해 분산하였다. 관군은 공격로를 따라 북소리에 맞추어 총을 쏘며 진격하였는데 관군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반군은 일체 응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군이 성벽에서 수십 보 정도 거리에 이르자 반군은 일제히 총탄과 궁시를 퍼부어 관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북문 공격조에서는 순무영 군관 김대택과 병사 2명이 전사하였고, 남문 공격조에서는 지휘관 제경욱이 총상을 입고 전사하였다. 이같이 피해가 누적되고 폭설이 심해지자 관군은 공격을 지속하지 못하고 일제히 후퇴하여 진영으로 복귀하였다. 이렇게 관군의 1차 총공격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1차 총공격 이후 관군은 진영의 위치를 조정하여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심리전의 일환으로 체포한 반군의 가족들을 성 앞으로 끌고 가 성 안의 반군들에게 투항하라고 호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성내의 반군들은 여기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sup>26)</sup>

---

26) 『서정일기』 임신 1월 18일.

&lt;표 2&gt; 2차 총공격을 위한 관군의 공격제대 편성표(1812년 1월 19일)

공격목표 (역할)	지휘관 및 담당 군영	주요 공성 무기 및 임무	비고
지휘 통제	중군 박기풍 정주 목사 서춘보	전열에서 지휘	
북문	좌초관 방우정 가산군수 정주성 순영군관 손태영 별무사 김우적 및 휘하 군병	층계(層梯)	
동북면	중초 초관 한석운 숙천부사 이유수 집사 박치대 별무사 정의진 및 휘하 군병	층계(層梯)	
동문 방향	행군 집사 사의관·자웅명· 조경린·이문주	지휘부 후방에서 독전.	
동남 사이	과총 윤지겸 별무사 정계석 장사군관 길의주 및 휘하 군병	층계(層梯)	
남문	순중군 이정희		
소서문	기사백총 박정희 별무사 매경은 및 휘하 군병		
서문 밖	마병 초관 이기정 차관 이동은 및 휘하 기병		매복조

관군의 2차 총공격은 1월 19일에 개시되었다. 이날 관군의 편성은 <표 2>와 같다.

이날 아침에는 지척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개가 자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군 병사들은 부대별로 지정된 목표를 향해 진군하였다. 공격 목표 부근에 이르자 관군은 취타대가 연주하는 북소리와 천아성(天鵝聲)<sup>27)</sup>에 맞추어 함성을 지르며 돌격하였다. 그러나 1차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관군이 성에 접근하자 몸을 숨기고 있던 반군들이 일제히 총환과 궁시를 퍼부었다. 피해자가 누적되자 관군은 공격을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후퇴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관

27) 군악의 하나.

군은 전사 8명, 부상 36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

2차 공격 실패 후 관군 지휘부는 공격을 일단 멈추고 전력 보강에 노력하였다. 두 차례의 총공격 실패로 많은 병사를 잃었으나 평안도 각지에서 모여든 의병들이 합류하여 관군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다.<sup>28)</sup>

관군 지휘부는 진영의 위치를 다시 조정하여 달천 동쪽에 모여 있던 병력들을 보다 성에 근접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문 밖에는 후영장이자 선봉장인 허항과 행영장 정래홍 및 그 휘하 병력, 함중부 병력을 두었고, 북문 밖에는 의병장 김견신과 휘하 병력, 소서문 밖에는 순천군수 오치수와 휘하 병력 등을 두었으며, 동문 쪽에는 삭주진 병력을 이동시켰다.<sup>29)</sup> 며칠 후에는 남문 밖에 평안 감영과 박천군의 병력을 추가 배치하여 정주성 모든 성문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하였다.<sup>30)</sup>

관군은 포위망을 구축하면서 공성용 장비도 새로 준비하였다. 순무영 본영에 대장군전과 대완구 등 대구경 화포와 탄자를 요청하는 한편, 비루(飛樓), 운제(雲梯), 녹로(轆轤)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전문 장인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sup>31)</sup> 화력을 보강하고 공성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관군의 활동이 성에 근접하게 되면서 소규모 접전이 계속 일어났다. 1월 26일 정주성 동쪽 오룡포에서는 관군 순찰대가 성을 나와 이동하던 반군 부대와 조우하여 전투를 벌여 반군 4명을 생포하였으며,<sup>32)</sup> 다음 날에는 외부와 연락을 위해 서신을 가지고 출성한 인원을 체포하기도 하였다.<sup>33)</sup> 반군은 동문과 남문 밖으로 병사들을

28) 의병 부대 중 의주 출신 허항의 의병진과 강계에서 온 송지립 의병진은 전투의 주역이었다.

29) 『서정일기』 임신 1월 20일.

30) 『서정일기』 임신 2월 1일.

31) 『서정일기』 임신 1월 22일.

32) 『서정일기』 임신 1월 26일.

내보내 성 주변의 가옥을 철거하여 관측과 사격의 장애물을 없앴으며, 인마를 약탈하여 물자를 보충하였다. 관군 역시 성내 반군의 수비방책 파악을 위해 동문 밖에서 야간에 큰 소리를 내면서 병력을 이동시켰고<sup>34)</sup> 남문 밖에 병력을 배치하여 반군의 행동을 감시하고 제어하였다.<sup>35)</sup>

관군은 중앙에서 기술자가 내려 오기 전인 2월 1일에 공성용 윤차(輪車) 4좌를 완성하였다.<sup>36)</sup> 윤차는 상 중 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5,6명의 총수가 탑승하는 상층은 두꺼운 송판을 이용하여 전면과 좌우면을 막았다. 송판 안쪽에는 철펠을 덧대어 방호력을 높였다. 중간층에는 층계(層梯)를 비치하였다. 가장 아래층에는 바퀴를 달았으며 병사들이 들어가 수레를 밀어서 나아가게 하였다. 역시 방호를 위해 외부에는 쇠가죽을 두르고 안쪽에는 철펠을 덧대었다(<그림 4>, <그림 5> 참조<sup>37)</sup>).

33) 『서정일기』 임신 1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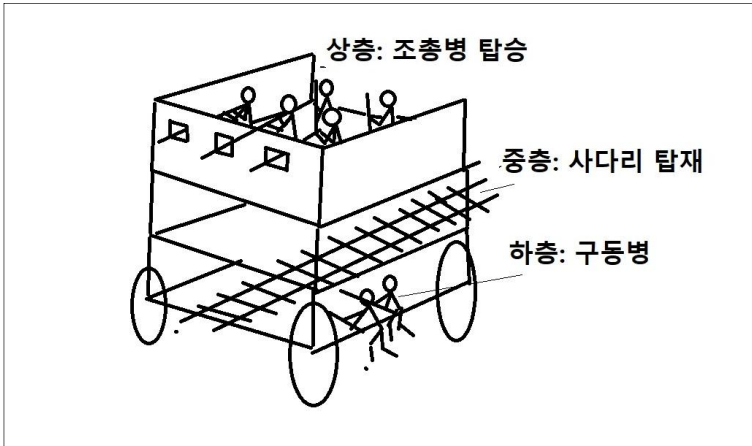
34) 『서정일기』 임신 1월 28일.

35) 『서정일기』 임신 1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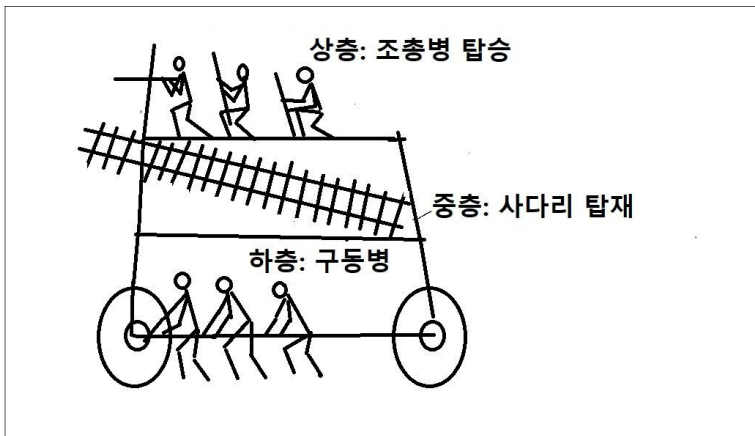
36) 1812년 2월에 관군이 제작한 공성용 윤차의 제원에 대해서는 『서정일기』 임신 2월 1일자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37) <그림 4>와 <그림 5>의 윤차도는 『서정일기』의 기록을 근거로 필자가 추정하여 그린 것이다. 중국에서 간행된 병서류에 유사한 형태의 도구가 있으나 그런 자료를 근거로 윤차를 제작하였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어 필자는 윤차의 형태와 운용 방식에 대한 묘사가 있는 『서정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형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

<그림 4> 공성용 운차도(추정)



<그림 5> 공성용 운차의 구조(추정)



수레의 무게에 비해 바퀴가 약한 문제가 있었으나<sup>38)</sup> 관군 지휘부는 이를 크게 개의치 않고 공성작전에 투입하였다.

38) 『서정일기』 임신 2월 1일

공성용 윤차를 준비하면서 관군은 우선 북문과 북장대 방향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였다. 2월 2일 새벽에 의병장 김건신과 삭주부사 윤민동 휘하의 군사들은 장작과 건초 더미를 모아 총탄과 화살 방호물로 삼아 성에 접근하였다. 성에 가까이 이르면 이를 던고 성을 넘으려 한 것이다. 성 북방에 대한 공격과 함께 양동작전을 도모하여 함중, 순천, 박천 소속 군사들을 서문과 남문 방향으로 진격시켰다. 순무영에서는 총수와 살수 각 1백 명을 동문으로, 역시 총수와 살수 각 1백 명을 남문으로 보내 공격을 응원하였다. 동문 밖에는 총수 1초를 매복군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반군은 관군의 의도를 간파하고 조롱하였다. 종일토록 북문 일대에서 주로 접전이 벌어졌으나 성과는 없었고 관군은 5명이 부상당하였다. 성에 근접하지 못한 북문 공격 부대는 날이 저물자 공격을 중단하고 시초더미를 불태우고 후퇴하였으며, 양동작전에 동원된 다른 부대들도 진영으로 복귀하였다.<sup>39)</sup>

<표 3 > 북문 공격시 관군의 공격제대 편성(1812년 2월 2일)

공격목표	지휘관 및 휘하 병력	주요 공성 무기 및 임무	비고(역할)
북문과 북장대	의병장 김건신 삭주부사 윤민동	시초더미 이용	주공
동문	좌초관 방우정 휘하 총수 1백명 파총 윤지겸 · 차관 정계석 휘하 살수 1백명		양동작전
동문 외곽	총수 1초		매복
남문	중초 차관 신명렬 휘하 총수 1백명 ·살수 1백명		양동작전
서남 방향 <sup>40)</sup>	함중, 순천, 박천 수령 및 휘하 병력		양동작전

39) 『서정일기』 임신 2월 2일

40) 『서정일기』 임신 2월 2일자 기사에는 서남문이라 하였으나 정주성에는 서문과 남문, 소서문이 있을 뿐 서남문은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서남문은 서남 방향인 것으로 추정하여 바꾸어 적었다.

遣別武士李文柱·金禹績，傳令咸順博三陣，進攻西南門，

북문을 공격목표로 삼은 공세가 실패하였으나 관군은 이미 제작된 윤차 등 공성 무기와 병력을 모두 동원한 3차 총공격을 준비하였다(3차 총공격의 부대별 목표는 <표 4> 참조).<sup>41)</sup>

<표 4 > 3차 총공격을 위한 관군의 공격제대 편성 구상(1812년 2월 2일)

공격목표 (역할)	지휘관 및 휘하 병력	주요 공성 무기 및 임무	비고
지휘 통제	순무중군 박기풍 정주목사 서춘보	남문 밖에서 독 전	
북문 및 북장대	선전관 김건신, 전부사 민수현 출신 김우중, 별군직 장낙현 및 휘하 병력		
	중초차관 신명렬과 경포수 50명	의병진 후원 복성 조공	
동문	삭주부사 윤민동 및 휘하 병력	동문 공격조	
	상변초관 이기정과 마병 30 기사 백충 박정희와 기사 20	동문 밖 매복조	
동남방향	순중군 이정희의 평양진 병력 박천 군수 이운식 휘하 병력		
남문	좌초관 방우정·차관 정계석 및 경포수 50, 영변포수 15, 창수 1백	윤차 남문 주공	
	과총 윤지겸, 장사군관 화유청·황하윤· 김용손 및 영변총수 50, 경포수 50, 창수 1백	윤차 남문 협공	
	가산군 정주성, 순무 군관 손태영, 전만호, 김계택, 별무사 정의진, 장사군관 유순왕· 방승원·최경담·박인주·김지후·김윤후 및 영변포수 50, 창수 1백	윤차 남문 협공	
소서문	숙천부사 이유수, 장사군관 손지원·전치상· 강시제, 집사 장중령·구시방 휘하 영변포수 50, 경포수 50	윤차 소서문 주공	
	순천군수 오치수 휘하 병력, 우림장 허항 및 의주 의병, 집사 박치대와 경군 일부	소서문 협공	
서문	함종부사 윤옥렬과 휘하 병력	서문 공격	
	차관 이동은·매경은 및 마병 30 기사 차관 최정복과 기사 20	서문 밖 매복	
유진장 (留陣將)	개천군수 유상필		

41) 『서정일기』 임신 2월 2일 후반부 기사

2월 3일은 새벽부터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은 날씨였다. 이를 무릅쓰고 관군은 윤차를 이용한 공성작전을 개시하였다. 윤차의 상층에는 총수들이 탑승하였고 맨 아래층에 군사들이 들어가 윤차를 밀었다. 동원한 윤차는 모두 4량이었고 남문과 소서문이 주공 방향이었다. 그러나 눈비 때문에 길은 이미 진창이 되어 윤차의 바퀴가 제대로 구르지 못하였고 3량이 연이어 멈추고 말았다. 이들을 겨우 끌어내어 길가에 세워두고 남은 하나의 윤차만 기동시킬 수 있었다. 관군 병력과 윤차가 남문 쪽으로 접근하자 반군은 일제 사격을 가하였으며, 관군도 응사하여 맹렬한 사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관군 병사들은 성문 주위에 깔려 있는 마름쇠(능철)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웠고, 눈비가 계속 내려 조총의 장전과 사격이 점점 불가능해졌다. 남문으로 향하던 윤차도 성에서 30보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바퀴가 빠지고 축이 부러져 기동할 수 없었고 반군 사격의 고정 목표물이 되어 버렸다. 윤차의 판자와 판철은 두께가 얇아 반군의 근거리 사격을 막지 못하였고 탄환이 관통하였다.

전투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으나 병사들의 피해만 늘어났고 관군이 성벽을 넘어 진입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관군 지휘부는 공성작전을 중단하고 다시 병력을 후퇴시켰다. 윤차들은 끌어내지 못하였으며 반군의 전리품이 되지 않도록 모두 소각하였다. 이날 전투의 관군 피해는 전사 14명, 부상 72명이었다.

3차 총공격 실패로 관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으나 지휘부는 순무영에서 보낸 화기와 운용 인력을 인수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윤차를 다시 제작하는 등 다음 공격을 준비하였다. 군병 가운데 나이가 많거나 병들어 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원을 뽑아 귀향시켜 정예 병력만 남겨 두었으며,<sup>42)</sup> 진영 부근에 있는 임경업의 사당인

42) 『순무영등록』 임신 2월 27일.

장군대(將軍臺)에서 기도제를 행한 후 제례 음식을 분배하고 시사(試射)를 거행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려 하였다.<sup>43)</sup>

공격 준비 기간 중에도 관군과 반군의 충돌은 계속 이어졌다. 2월 7일에는 삭주진 군사들이 동문을 폭파하려 시도하였고, 2월 13일에는 정주성 북장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sup>44)</sup> 의병장 김견신과 휘하 의병들이 성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sup>45)</sup>

반군의 출성 공격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2월 9일 밤에는 반군 병사들이 동문 밖 오룡포 일대의 박천진을 공격하였다. 박천진 병사들은 외부와 연락을 도모하거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성에서 나오는 반군을 포획하기 위해 매복하고 있었으나 몰래 성을 빠져나온 반군에게 오히려 기습을 당한 것이다.<sup>46)</sup> 2월 19일에는 반군이 동문 밖에 병력을 매복시키려 하였으나 이를 포착한 강계 의병 부대의 공격을 받아 6명이 전사하였다. 곧이어 남문을 통해 5,6백 명이 성을 나와 관군과 교전하였으나<sup>47)</sup> 최소 전사 7명 이상의 피해를 입고 패퇴하였다.

정주성을 둘러싼 충돌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중에 조정에서는 반란이 일어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진압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책임을 물어 관군의 현지 사령관인 순무 중군 겸 평안병사 박기풍을 삭직하고 후임으로 좌포도대장을 역임한 유효원(柳孝源)을 임명하였다.<sup>48)</sup> 이 소식은 23일에 관군 진영에 알려졌으나 박기풍은 동요하

43) 『서정일기』 임신 2월 15일, 16일.

44) 이날 화재로 북장대가 전소되었다.

45) 『서정일기』 임신 2월 13일. 이날 북장대의 화재사건은 앞서 반군 회유를 위해 투입한 투항 반군 이상옥이 일으킨 것이라 하였다(『서정일기』 임신 2월 20일).

46) 『서정일기』 임신 2월 7일. 이 때 성을 빠져나온 반군 중 일부는 정주와 곡산 등지 에까지 이르러 정보를 수집하고 응원을 구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현지에서 체포되었으며, 관군 진영으로 끌려와 처형되었다(『서정일기』 임신 2월 9일, 2월 11일 기사).

47) 출성 공격에 참여한 병력의 수는 과장되기가 쉬우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48) 토벌 지연의 책임을 물어 박기풍 삭직이 정해지자 좌의정 김재관과 우의정 김사목

지 않고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관군의 4차 총공격은 2월 25일에 개시되었다. 이날 자시부터 관군은 7방향으로 진군하였다(공격 제대 편제는 <표 5>와 같음). 관군의 주요 공성도구는 순무영 본영에서 파견한 목수 김재명이 제작한 윤차(輪車)였다.

<표 5 > 4차 총공격을 위한 관군의 공격제대 편성표(1812년 2월 25일)

공격목표 (역할)	지휘관 및 휘하 병력	공성 방식 및 주요 공성 무기	비고
지휘 통제	중군 박기풍 휘하 기사와 기고군	중료에서 독전	
후방 대기	평양 중군 이정희와 평양진 병력 박천군수 이운식과 휘하 병력		
북문	내금위 허항과 의주 의병	윤차	자작수레 추가
북장대	태천현감 김건신, 전부사 민수현 관관 장락현 출신 김우중 및 휘하의 병력	윤차	
동북면	숙천부사 이유수, 중초관 손태영, 전선전관 이용현, 구시방·김계택·황하윤·황 유청, 별부사 정의진·김창건 등과 휘하 병력, 굴도군 11, 강계의병장 송지림 휘하 의병	윤차	
동문	삭주부사 윤민동과 휘하 병력	층계	
동남면	좌초관 방우정 휘하 좌초군 파총 윤지겸, 차관 정계석 가산군수 정주성 휘하병력과 벽동 의병	윤차	
남문	군관 김지환 외 7인의 장사군관배	윤차, 남문 주공	
	책응집사 김인환, 이정량 휘하의 별파군	각종 화포	남문 공격부대 화력 지원
소서문	순천군수 오치수, 함종부사 윤옥렬 경집사 박치대, 장사군관 송대윤	윤차	
서문	마병초관 이기정, 차관 이동은·매경은 및 휘하 마병		서문 밖 매복조
유진장	개천군수 유상필 및 휘하 병력		

등 대신들은 전투 중에 지휘관을 교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하였으나 문책성 인사가 최종 결정되었다(『순조실록』 순조 12년 2월 18일 신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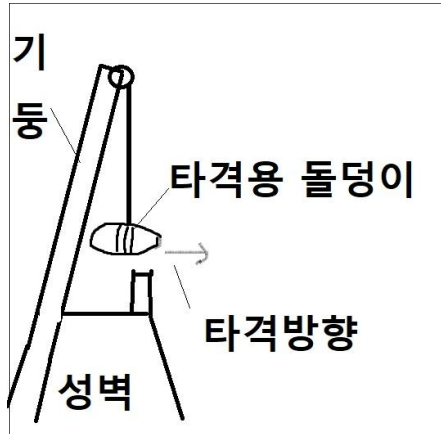
김재명이 제작한 윤차는 2차 총공격 때 사용하였던 윤차의 문제였던 허술한 바퀴와 상층부 방호력의 문제를 보완한 것이었다.<sup>49)</sup> 총수들이 탑승하는 상장(上粧)의 판재와 철판을 보강하고 상장 앞부분에 추가로 회석(灰石)을 쌓았다. 이 회석더미는 윤차가 성벽으로 접근할 때에는 방호력을 높여주고 윤차가 성벽에 닿으면 병사들이 이를 딛고 성벽 위로 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기대하였다.

4차 총공격의 제일 목표는 동북쪽 성벽이었다. 동북면 공격부대에는 굴토군(掘土軍) 1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성벽에 이르면 아랫돌을 파내거나 성벽 아래쪽을 파헤쳐 성을 무너뜨리는 임무를 맡았다.

나름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공격을 시작하였음에도 전투는 관군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동북방면의 상황을 보면 관군이 성벽에 접근하자 반군은 먼저 조총 사격을 가하였고 이어서 화전(火箭)을 발사하였다. 화전이 윤차 위에 탑재한 회석 더미에 명중하자 불이 붙어 연기가 일었고 관군 병사들은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벽까지 윤차를 접근시켰으나 반군은 새로운 무기를 이용하여 윤차 공격을 막았다. 반군의 신무기는 성벽 위에 세운 기둥에 무거운 돌을 매단 것이었다(<그림 6> 반군의 수성 무기 참조).

49) 바퀴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윤차에 대해서는 바퀴를 약한 나무로 만들어 허술하다고 보았던 것에 비해 이 때 제작된 윤차에 대해서는 그러한 평가가 없었고 이동시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바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추정할 것이다.

<그림 6> 반군의 수성 무기(추론)



반군들은 이 기구의 돌로 윤차를 타격하여 상장 부분을 파괴하였으며 계속 화공을 가하였다. 이에 윤차의 상장에 탑승한 병사들은 화염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내려 피하였고 하부에서 윤차를 밀던 병사들도 도주하여 윤차들은 불에 타버렸다. 성 위에서 쏟아지는 총탄과 화살을 피할 수 없었던 굴토군들도 피신하여 성벽을 무너뜨리려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소서문과 북문에 대한 공격도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남문 지역 공격 제대는 윤차의 바퀴가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않았고, 반군은 이 기회를 틈타 남문의 옹성을 돌아서 출격하여 관군을 기습하였다. 반군은 화약을 이용하여 윤차에 방화하였고 남문 밖의 관군 병력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동남 방향의 공격을 맡았던 관군부대의 지원사격을 이기지 못하고 성내로 철수하여 관군은 겨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날이 저물고 공격의 효과를 보지 못하자 관군은 패배를 인정하고 병력을 철수시켰다. 이미 파괴되어 불타는 윤차들은 물론 남은 윤차

들도 모두 부수고 소각하여 반군이 전리품으로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날 관군은 전사 2명, 부상 144명의 인명 손실을 입었다. 수성전에서 계속 승리한 반군은 밤새 풍악을 울리며 성벽 위를 돌면서 자축하였고, 관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다.<sup>50)</sup>

관군의 총공격이 실패한 후에도 양측의 공방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2월 27일에는 성 밖에 나와 매복한 반군이 성 주위를 지나던 관군 장교의 군마를 빼앗기도 하였다.<sup>51)</sup> 29일에는 관군의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출성한 반군과 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다. 같은 날 관군은 북장대 방향에 화공을 시도하였고, 남문 밖에서도 양동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반군은 거의 대응하지 않았고 관군의 공격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관군은 고립된 반군이 성을 빠져나오기 위해 출성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여 목책을 세우고 진의 방비를 강화하려 하였으며, 3월 5일에는 반군과 내용한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 다. 반군의 출성 공격

1812년 3월이 되자 관군은 성 전체를 에워싸는 목책을 설치·보강하고 주·야간 경계의 수위를 높였다. 전면 공격보다는 포위망을 강화하여 성을 더욱 고립시키려 한 것이다. 이에 대응한 반군의 출성 공격은 이전보다 훨씬 빈번해졌다.

반군이 정주성을 처음 점거하였을 때, 뒤늦게 추격해 온 관군은

50) 『서정일기』 임신 2월 25일. 반군은 다음 날에도 정예병력이 모여 있는 북장대에서 크게 잔치를 열어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51) 군마를 탈취한 반군은 곧바로 도살하여 나누어 먹으면서 관군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성 안의 식량 사정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성과 근접한 곳에 진영을 설치하지 않았고 공격할 경우에만 병력을 이동시켜 전투를 벌였다. 이에 반군 지휘부는 전투가 없는 틈을 타서 성 주변 주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었고 인근 읍에 연락책들을 보내 지원 세력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관군은 주변 지역을 소탕하여 정주성에 대한 외부의 지원을 차단하였으며 주변의 주민들도 성으로 몰려 들어가거나 외지로 소개되어 성 내외의 연계는 끊어졌다. 관군의 여러 차례 총공격은 모두 실패하였으나 점차 진영을 성에 가까운 곳으로 옮겼고 성의 고립은 심화되었다.

수성 전투에서 연승을 거두었어도 반군의 형편은 개선되지 않았다. 성안의 주민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였으나 탈출자는 계속 이어졌고, 전투가 벌어지면 적은 수라도 인명 손실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 외부에서의 병력 충원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러한 손실은 전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식량과 물자의 부족이었다. 반군이 처음 정주성에 들어갔을 때에는 식량이나 화약, 탄환의 양이 넉넉하였다. 그러나 2개월 이상 전투가 지속되면서 식량과 장비의 부족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반군은 개인당 배급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sup>52)</sup> 부족한 연환 대신 철환을 사용하는 등 응급 조치를 취하였다.<sup>53)</sup>

52) 관군은 포로로 잡은 반군의 진술을 통해 성안의 식량 사정을 파악하였는데, 포로가 사로잡힌 날짜나 출성 목적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다르다. 예를 들면, 3월 23일에 출성하였다가 체포된 정신지는 3월 23일까지는 매 끼니마다 쌀이나 좁쌀을 1승씩 받았고 그후에는 절반씩 받았다고 하였다(『평란록』 권5, 『판서평란록』 1, p. 559). 이에 비해 3월 20일에 성 밖의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출성하였다가 잡힌 황중대는 3월 17일까지는 매일 쌀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국자(麩子-누룩) 1승씩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는 국자도 거의 고갈되었으며 성안의 모든 가축은 반군 지휘관들의 군마 몇 필만 남기고 모두 도살하였다는 사실도 진술하였다(『평란록』 권5, 『판서평란록』 1, p. 567).

53) 조총에 사용할 철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온으로 쇠를 녹인 후 주형틀에 부어 제작해야 한다. 그러나 땀감이나 장비가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그러한 작업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무쇠 솥을 부수어 철편을 그대로 조총 탄환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반군 지휘부는 과감한 출성 작전을 통해 관군 영채를 습격하고 혈로를 뚫어 외부의 지원을 받거나 근거지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 하였다.<sup>54)</sup> 1, 2월에 공방전이 벌어질 때에도 반군은 기회가 되는대로 성을 나와 관군을 공격하여 전과를 확대하고 물자를 확보하려 하였으나, 3월 이후에는 출성 공격의 목표가 변한 것이다.

반군의 공세적 출성 작전은 3월 9일에 시도되었다. 이날 이른 새벽에 서문을 빠져나온 다수의 반군<sup>55)</sup> 몸을 낮춘 채 무릎걸음으로 은밀히 이동하여 함중진 군영을 기습하였다. 외곽 경계병들을 먼저 제거한 반군은 함중진을 포위한 후 불붙인 화약주머니를 던져 막사와 영채를 불태우고 돌입하였다. 이들은 장창과 장검을 이용하여 미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함중진 병사들을 참살하였다. 반군의 계획은 함중진을 유린하고 관군 총지휘관이 있는 남쪽의 본진을 공격하여 관군 진영을 어지럽힌 후 포위망을 뚫고 도주로를 확보하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함중진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부근의 순천진에서 보낸 구원병이 반격에 나서자 반군은 애초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채 전투를 중지하고 성으로 복귀하였다. 이날 전투로 함중진 병력 중 70명이 전사하였고 137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인근의 의주 의병진의 병사들도 3명이 전사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함중진 지휘관 부사 윤육렬은 평양진으로 피신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

---

보인다. 이 경우 총강의 밀폐도가 떨어져 사거리가 짧아지고 정확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생긴다.

- 54) 출성 공격을 통한 혈로 확보는 극히 어려운 일이어서 관군이나 반군 모두 구사일생(九死一生)이 아니라 만사일생(萬死一生)의 길이라고 할 정도였다(『서정일기』 임신 3월 9일).
- 55) 3월 9일의 전투에서 함중진 부상자의 수는 137명 혹은 127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의주 의병 허항의 진에서 구원하지 않았다고 한 기록과 구원하다가 전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병존한다. 이와 같이 기록된 내용과 숫자의 신빙성이 낮으므로 이 날의 출성 공격에 참가한 반군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제시하지 못하고 반군 무리라 표현하였다.

고, 현장에 있던 남한산성 별파진 교련관 이정량도 전사하였다.<sup>56)</sup> 반군은 10여 명이 전사하고 4명이 생포되었다<sup>57)</sup>.

포위망을 굳히고도 기습을 당한 관군은 생포한 반군 4명을 모두 목 베어 분풀이를 하고, 주야간 경계태세를 강화하였다. 특히 군병들이 함부로 진영을 벗어나 여항에서 유희를 즐기는 행동을 단속하여 군기 누설을 막으려 하였다.<sup>58)</sup>

경계강화 조치의 역효과도 있었다. 야간 경계 병력들은 반군의 출성 공격을 겁내어 작은 움직임에도 과잉 반응하여 큰소리로 경보를 알렸고 그때마다 전군이 동요한 것이다. 3월 12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수시로 경보가 발령되었고 병사들의 피로는 누적되었다.<sup>59)</sup>

피로해진 관군 병사들의 경계심은 더 소홀해졌고 이를 파악한 반군은 또다른 기습 공격을 시도하였다. 3월 15일 오후에 반군 1천여 명이 북문을 통해 나와 성 밖의 언덕에 포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관군의 기병이 먼저 돌격하였고, 포수들도 뒤따라 접근하여 사격을 가하였다. 반군은 언덕에서 평지로 이동하여 응전하였으며 상호간에 치열한 사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전투 중에 반군 지도부의 핵심 인물인 김사용이 피격되어 성안으로 후송되자 사기가 꺾인 반군은 모두 성으로 철수하였다.<sup>60)</sup>

반군이 계속 출성 공격을 시도한 것은 성내의 상황이 매우 나빠

56) 이정량은 화포 등 중화기 운영 지원을 위해 파견된 남한산성 별파진 병사들의 지휘관이었으며, 정주성을 둘러싼 목책 설치 공사 현장 감독을 위해 함종진에 머물다가 피살된 것이다.

57) 『서정일기』 임신 3월 9일

58) 군병들의 여항 출입을 금지한 것은 그동안 병사들의 군기 문란 및 약탈 행의 폐해가 컸고, 출격 일시 등에 관한 정보 누설도 심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59) 관군의 경계 강화 조치와 오인 경보가 계속되자 반군은 이를 역이용하여 3월 15일에는 많은 병력을 내어 출성 공격할 것처럼 위장하였다가 관군이 요격하기 위해 출동하자 철수하여 관군의 피로를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60) 이 때 부상당한 김사용은 4.5일 후에 절명하였다.

졌기 때문이었다. 식량이 고갈된 주민들은 아사를 면하기 위해 성 주변에서 풀뿌리를 캐거나 소나무 껍질을 벗겨야만 하는 형편이었다.<sup>61)</sup>

반군의 출성 공격에 대비하여 관군지휘부에서는 반군들이 성을 나올 기미가 보이면 성문 주위의 각 진영에서는 본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총수들을 동원하여 제압하도록 하였으며, 동문 밖에도 포수들을 상시 태복시켰다.<sup>62)</sup> 아울러 굶주린 성안 군민들을 자극하여 출성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관군 각 진의 각 초마다 소한 마리씩을 나누어 주어 크게 잔치를 벌이기도 하였다.<sup>63)</sup>

반군의 3월 20일에도 출성 공격을 벌였다. 북문과 서문을 통해 성을 빠져나온 반군은 함종진과 의주진의 방어용 목책을 뽑아 내고 영채로 돌입하였다. 그때 의주진 대장 허항은 외부에 있다가 급히 돌아와 반격을 지휘하였으나 반군의 우두머리 중 하나인 홍충각에게 피살되었다. 이 과정에서 허항의 부하가 쏜 총에 맞아 홍충각도 상처를 입었다. 의주진이 유린되고 있다는 급보에 본진에서는 중초관 손태영이 지휘하는 기보병을 보내 지원하였으며, 이들의 공격을 받은 반군은 기세가 꺾여 다시 성으로 도주하였다. 이 전투에서 관군은 허항 외에도 전사 23, 부상 6명의 피해를 입었고, 반군은 관군 측에서 확인한 숫자만으로도 48명이 전사하였으며 다수의 갑옷과 조총, 방패 등 군기를 빼앗겼다.

사상자의 숫자만 비교하면 관군의 승리라고 할 수 있으나, 기습을 막지 못해 평소 전공이 뛰어난 지휘관을 잃었고 상호 지원에도 실패하여 손실이 큰 전투였다. 반군 역시 많은 병력을 잃었으므로

61) 『서정일기』 임신 3월 17일.

62) 『서정일기』 임신 3월 17일.

63) 『서정일기』 임신 3월 18일. 정조 때의 기록을 보면 화성 성역을 마치고 노역자 3,841명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을 때 소 24마리가 소비되었다. 160 명당 1마리가 쓰인 셈이다(『일성록』 정조 20년 9월 16일). 1초의 병력이 120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개인당 아주 넉넉한 양의 육류가 분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과를 내세우기 어려웠다.

반군 최후의 출성 공격은 3월 22일에 시도되었다. 홍경래와 우군 칙은 남은 병력 중 정예병들을 엄선하여 편성한 공격 부대를 직접 이끌고 출격하였다. 반군은 동문을 통해 나와 달천교 부근까지 은밀하게 이동하여 관군 경계병들을 제거하고 곧바로 관군 본진을 공격하였다. 반군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군의 화약과 군기 보관소였다. 그러나 목표 지점에 이르기 전에 관군의 반격을 받아 반군은 다시 패퇴하였다. 천여 명으로 알려진 출격 병사들 가운데 태반이 전사 혹은 도주하였으며 수백 명 만이 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모처럼 대승을 거둔 관군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병사들에게 금전을 나누어 주고 노획한 군마와 창 등 군기를 상으로 주어 포상하였다. 이 전투 이후 반군은 조직적으로 성을 나와 관군을 공격하거나 탈출하지 못하였다.

퇴로가 막힌 반군은 최후를 각오하고 전투력이 없는 주민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하였다. 3월 23일에는 남녀 67인(남 7, 여 60)을 내보냈으며, 이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자 26일에는 추가로 161인(남 6, 여 155)을 내보냈다.<sup>64)</sup>

이들에 대한 심문을 통해 관군은 식량 사정이 지극히 나쁜 반군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었으나 반군이 항복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관군은 마지막 총공격을 준비하는 한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모하였다.

## 라. 관군의 굴토 폭파 작전과 정주성 함락

여러 차례의 과감한 출성 공격이 실패한 반군은 성내 주민 중 일

64) 성에서 나온 주민들은 모두 노약자이거나 부녀자였다. 관군은 그저 인원이나 줄이려고 이들을 내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군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정보 누설을 알면서도 이들을 내보낸 것이니 얼마나 상황이 나빴는지 알 수 있었다.

부를 내보내어 식량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 하였다. 이들을 통해 성안의 사정을 파악한 관군은 반군들이 곧 자멸할 것이라 예견하면서도 성을 점령하기 위한 총공격을 준비하였다(<표 6> 5차 공격제대 편성표 참조).

<표 6> 5차 총공격을 위한 관군의 공격제대 편성표(1812년 4월 3일)

공격목표 (역할)	지휘관 및 휘하 병력	공성 방식 및 주요 공성 무기	비고
지휘 통제· 후방 대기	중군 유효원 휘하 좌초군, 좌초장 방우정, 파총 윤지겸	후방 책응	동문 밖 삭주진 부근
북문	전부사 민수현, 관관 장락현 의병장 강인학		
북장대	중초관 손태영, 병우후 이익 태천현감 김건신,, 의주 의병장 송지렴 삭주부사 윤민동	축토 작업	
동문	숙천부사 이유수, 가산군수 정주성 진 선진관 이용현·구시방	축토 작업	
남문	순중군 이정희, 박천군수 이운식		
소서문	순천군수 오치수, 함중부사 윤옥렬 의병장 정래홍		
서북방향 당아령	마병조관 이기정 휘하 마병 15, 기사 15, 창수 30, 총수 6		매복조
서문 밖 관산 방향	별무사 매정은 휘하 마병 32, 기사 12, 의주 기사 4		매복조
남문 밖 10리	기사차관 최정준 휘하 기사 15, 마병 10, 창수 30, 총수 2		매복조
북쪽 도로	최천학과 의병		매복조
북대로	이시복·한금기와 의병		매복조

4월 3일 새벽에 관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앞서의 공성 작전 부대 편제와 비교해 보면 여러 경로에 매복조를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식량 사정이 어렵고 전의를 상실한 반군들은 저항보다는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공격제대 편성과 업무를 보면, 북문 및 북장대 지역과 동문 방향의 공격부대는 공격 뿐 아니라 토축작업도 병행하려 하였다.<sup>65)</sup> 앞서 여러 차례의 정면 공격이 실패한 후 관군지휘부에서는 성문 아래에 지하 갱도를 굴착한

후 화약을 이용하여 문루와 성벽을 파괴하거나 성벽과 비슷한 높이의 토축[거인(拒堙)]을 쌓아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제 전투의 양상은 앞서의 공성전과 별 차이가 없게 전개되었다. 관군은 북장대 방면 공격에서만 증제를 이용하려 하였을 뿐 윤차와 같은 공성 도구를 동원하지도 않았다. 수비가 취약한 곳을 정하여 전력을 집중하지 않고 성벽이나 성문을 일제 공격하는 관군의 기존 공격 방식도 변함이 없었다. 전력이 줄어든 반군의 저항이 약해 쉽게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으나, 예상외로 강한 반격에 관군은 많은 피해를 입고 다시 철수하였다.

총공격 실패 후 관군 지휘부는 갱도 굴착 및 폭파작전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심하였다. 폭파 대상은 성의 북문과 북장대 지역으로 정하였는데, 이곳은 반군 중에도 정예병들이 둔취한 곳으로 파악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66)</sup>

굴토작업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 땅을 파고 들어가야 하는 지난한 작업 대신 거인(拒堙) 구축 작업, 즉 성 밖에서 흙을 쌓으면서 전진하여 성벽을 오를 수 있는 기틀을 만들자는 방안이 강력히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방식을 지지하는 지휘관들은 동문 방향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이미 굴토 작업을 시작하여 주관하던

65) 이날 관군은 북문과 동북면에서 흙으로 낮은 곳을 메워 성벽을 넘으려 하였으며, 소서문 공격조는 정거(鼎車)를 이용하여 문루를 태울 계획이었다.(정석중, 앞 논문: 663-664).

66) 북문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갱도 굴착 작업을 숨기기 위해 동문 방향에서 거인(拒堙)을 축조하는 작전도 병행 추진되었다. 앞서 북문 방향으로 굴토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관군 지휘부 내부에서는 굴토작업은 공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땅 위에서 토축을 쌓아 성을 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논란이 있었다(근거자료 제시). 이에 대해 관의군 연합부대의 총지휘관인 순무중군 유효원은 갱도 굴착 및 폭파 작전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북문 방향 굴토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작업 인원 통솔과 화약 적치 및 폭파 등 실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초관 손태영이 굴토 및 폭파 작전을 고집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작전 책임자 순무영 중초관 손태영은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화약을 묻고 폭파하는 시범을 보여주었으며, 굴착도구의 효율성까지 입증하였다. 그의 노력에 따라 관군 지휘부는 굴토작업에 전념하게 되었다.<sup>67)</sup>

굴토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암석지대를 만나 우회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sup>68)</sup>, 폭우가 쏟아져 토굴이 물에 잠겨 굴착 작업과 배수작업을 병행하는 난관을 겪기도 하였다<sup>69)</sup>. 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은 운산의 연군(烟軍)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며,<sup>70)</sup> 이들의 태업을 막기 위한 강제와 회유조치도 필수적이었다.<sup>71)</sup>

굴토 작업을 진행하면서 관군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상에는 토축을 쌓아 전진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또 성에 포격을 가하거나 대조총 등으로 원거리 사격을 가하여 반군의 관측이나 출성 기도를 방지하려 하였다.<sup>72)</sup> 토굴이 성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는 땅위로 노출되다시피 하여 은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북성 쪽의 반군은 토축이 계속 성 쪽으로 접근하므로 그 뒤로 관군이 어떤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경계하였으며 활이나 조총을 토축 너머로 고각사격하여 반응을 확인하려 하였다.<sup>73)</sup> 작업 지대 앞의 토축은 좋은 은폐 장치로 반군의 관측과 직사는 막을 수 있었으나 고각으로 하늘 위로 올라갔다 낙하하는 화살이나 탄환은 막을 수 없었고 부상당하는 작업자들이 생기기도 하였다.

67) 『서정일기』 임신 4월 4일.

68) 『서정일기』 임신 4월 6일.

69) 『서정일기』 임신 4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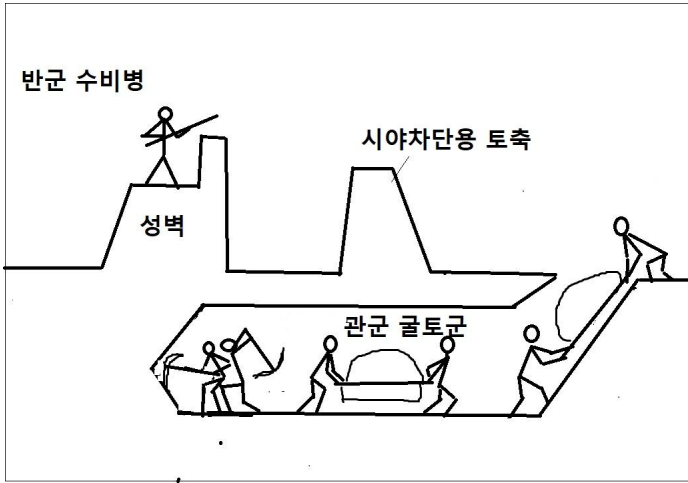
70) 『서정일기』 임신 4월 4일.

71) 『서정일기』 임신 4월 6일.

72) 『서정일기』 임신 4월 5일, 4월 11일.

73) 『서정일기』 임신 4월 17일.

<그림 7> 굴토작업 단면도(추정)



난관이 많았으나 공사는 4월 15일에 거의 마무리되었고, 폭파에 필요한 화약에 대해 논의한 끝에 1천 7백근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4월 17일이 되자 공사는 끝났으며 18일에 관군은 화약을 장착하고 화승을 죽통으로 연결하여 점화 준비를 하였다. 점화 직전 관군은 <표 7>과 같이 공격군 제대를 배치하였다.

4월 19일 새벽에 관군은 매설한 화약에 점화하였고 폭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폭파에 대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만 느껴지다가 곧이어 굉음과 함께 폭연이 솟구쳤다고 하였다.

폭발의 충격으로 북문과 문루가 흔적도 없이 날아갔으며, 북장대 부근에 있던 반군 수백 명은 한꺼번에 매몰되었다. 폭연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확인한 관군은 일제히 성으로 진입하였다. 북문 지역을 통해 쇄도한 관군은 동문과 북문을 안에서 개방하였다. 성 중앙 향교 부근에서는 반군의 저항으로 접전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나 반군은 관군의 기세를 당할 수 없었다. 관군 지휘

부에서는 반군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명을 내렸으나 마구잡이 참살은 도처에서 벌어졌다. 반군 중 일부는 남문을 통해 도주하였으나 외곽의 매복 병력들에 의해 대부분 사로잡혔고, 나머지 반군들은 남문 주위에 몰려 있다가 모두 관군의 포로가 되었다.

<표 7 > 북장대 폭파 후 성내 진입을 위한 관군의 공격제대 편성표  
(1812년 4월 19일)

진입로	지휘관 및 군영	담당 임무	비고
북진 부근	중군(유효원)	지휘 통제 및 독전	
	좌초관 방우정, 과충 윤지겸 기타 장교가 이끄는 좌중초 보군 전배대기치		중군 호위 및 위력 시위
북장대	중초관 손태영, 병중군 이익, 삭주부사 윤민동, 태천현감 김건신, 의병장 송지렴, 별파진 차지 김인환 및 휘하 군병	폭파 및 진입 선봉	
북문	함중부사 윤옥렬 함중 관병 및 의병	층계 이용	
동문	순중군 이정희 가산군수 정주성 정주목사 임재수 휘하의 평양, 가산, 정주 관병		
	이용현, 구시방의 유격병	층계 이용	
소서문	순천군수 오치수		
곽산 경로	최천학의 의병		매복군
북문 외곽	마병초관 이기정 휘하의 마병 40명, 기사 20명		매복군
	소모장 김인중, 김우중, 한금기 휘하 의 총수 270명		
귀성, 태천 경로	김지환 및 휘하 군병		매복군
동문 북변-달천 교	마병 차관 이동은과 마병 60명		
	기사 백충 박정희와 기사 30명		매복군

관군이 정주성 내에서 사로잡은 인원은 모두 2,983명이었다. 관군은 이 가운데 여자 842명과 남자 10세 이하 224명은 불문에 붙여 석방하였으며, 나머지 1,917명은 모두 당일로 참살하였다.<sup>74)</sup> 이상과 같이 1811년 평안도 가산 다북동의 봉기로 시작한 홍경래란은 1812년 4월 19일 관군의 정주성 점령으로 종식되었다.

정주성 점령과 반군 소탕을 마친 관군은 곧바로 이언평으로 이동하여 철수 및 해산 절차에 착수하였다. 지방의 향군과 의병들은 건량(乾糧)을 지급하고 귀가하도록 하였고, 한양에서 온 순무영 군사들은 한양으로 회군한 후 해산하였다.

#### 4. 관군과 반군의 역량 비교

정주성 공방전이 전개되는 동안 관군은 다수의 군병과 우수한 무기, 막대한 물자를 바탕으로 적극 공세를 펼쳤으나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폭파한 후에야 진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군은 관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었으나 출성 공격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sup>75)</sup> 본 장에서는 관군과 반군의 역량과 장단점을 비교

74) 정주성 점령 후 관군이 몰살한 인원의 숫자가 1,917명이라는 것은 관찬사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연구 논저나 개설서, 교과서 등에도 그대로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관서평란록』에는 정주성 점령 직후 관군의 포로 참살을 피해 도주하였다가 추후에 본향에서 다시 잡혀 조사받고 죽임을 당한 사례가 여럿 보인다. 『서정일기』에도 10세 이하 남자를 살리라고 했다가 다시 15세 이하 남자를 살리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서정일기』 임신 4월 19일). 『진중일기』에도 20일에도 처형이 계속되었고, 굴이나 벽속에 숨은 잔당까지 수색해내어 참하였으며, 시체 더미에서 생존자들을 수색하여 다시 죽였다고 하였다(『진중일기』 임신 4월 21일). 따라서 정주성 점령 후 참살된 숫자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몇몇 누락된 사례가 있고 체포한 인원 참살의 연령 기준이 바뀌었다 해도 반군 수뇌부이거나 적극 가담자 여부를 가리지 않고 생포한 주민들도 반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만으로 모두 죽였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해 보고자 한다.

### 가. 관군의 고전

1811년 12월 29일에 관군은 안주 송림전투에서 반군을 격파하였으나 주변 지역 약탈과 초토화에 정신이 팔려 홍경래가 이끄는 반군 주력을 급히 추격하지 않아 도주한 반군이 정주성에 들어가 저항의 거점으로 삼도록 방치하였다. 또, 정주성 주변 지역을 평정하여 성을 고립시키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김사용 등의 또다른 반군 세력이 정주성에 합류하는 것을 막지도 못하였다. 이들의 합세로 반군 전력의 커졌으므로 관군은 정주성 공략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기존의 연구에서는 관군의 문제점으로 낮은 사기, 전투보다 주변 지역 약탈에 치중한 탐학성, 지휘부의 무능함 등을 지적한 바 있다.<sup>75)</sup> 본 연구에서는 관군이 농성전을 조기에 끝내지 못한 요인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속전속결 방침 고수에 따른 졸속 공격

정주성 공방전 당시 관군의 문제점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속전속결을 바라는 조급함이었다. 관군 지휘부의 조급성은 장기간 포위를 견디지 못한 반군의 출성 항복이나 선무 공작을 통한 내부 동요를 기다리지 않고 급속히 공격작전을 벌이거나, 관군의 공격 준비 태세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전체 전력을 총동원하여 전면 공격을 반복한 것 모두 해당한다.

---

75) 야전 혹은 조우전에서 관군의 우수성과 반군의 약점이 가장 잘 드러난 전투는 안주 송림전투였다. 이 전투의 패배로 반군의 기세는 크게 꺾였다. 개별 전투 사례에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야전에서의 전투는 관군이, 수성 전투는 반군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6) 정석중, 앞의 논문:653-654

1811년 12월 29일 반군이 정주성을 점거한 직후 순영(평안감영) 비장 제경육이 주도한 동문 공격작전(1812년 1월 5일)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반군이 수비태세를 정돈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한 군사행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순무영 군사들이 현지의 평안도 병력들과 합세하여 경향 연합군 체제를 정비하였을 때에는 반군의 정주성 방어체계가 이미 갖추어진 이후였다. 그러므로 관군은 지형을 정찰하고 반군의 수비 상황, 병력 배치 등에 대한 정보를 모은 후 이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공격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관군 지휘부는 단기간의 사전 정탐만 실시하였을 뿐 지형과 지세, 주 공격 방향이나 목표에 대한 숙의나 작전 회의를 생략한 채 곧바로 전면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러한 조급한 공격은 당연히 실패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성이나 신중론은 제기되지 않았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무리하게 전면 공격을 되풀이한 것 역시 조급함의 결과였다. 1812년 1월과 2월 두달 간 관군은 전면 공격과 실패, 공격 부대 재편성 및 재공격을 반복하였는데 전투 사이의 간격은 짧게는 4일, 길어야 22일이었다<sup>77)</sup>.

관군은 전면 공격을 할 때마다 보병이 운반할 수 있는 사다리 뿐 아니라 바퀴가 달린 윤차라는 새로운 공성 도구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실전에서 이를 운용해야 하는 병사들이 새로운 도구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키거나 예행 연습할 시간은 부여하지 않았으며 완성되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실전에 투입하였다. 불리한 지형에서 낯선 공성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병사들은 장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전투가 벌어지면 관군 병사들은 반군의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으며, 전투의 패배와 장비의 손실이라는 악

77) 1812년 1월 15일의 1차 총공격과 1월 19일의 2차 총공격 사이의 기간은 4일에 지나지 않았으며, 총공격 사이의 기간이 가장 길었던 1812년 2월 3일의 3차 총공격과 2월 25일의 4차 총공격 간의 간격은 22일이었다.

순환이 반복되었다.

관군은 성벽과 성문에서 수비가 소홀하거나 허술한 곳, 지형상 취약한 곳을 파악하여 전력을 집중하지 못하고 매번 같은 방식의 전면 공격을 되풀이하였으며 사상자만 늘어났다. 이 역시 급히 성을 점령해야 한다는 지휘부의 압박감 때문이었다.

포위 공격을 하면서 날씨와 전투 시간을 적절히 선택하지 못하였던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 때문이었다. 상대의 위치와 규모를 모른 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야지에서의 전투와 달리 공성전에서는 수비군의 병력수나 주요 무기 등 전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성이라는 목표는 명확하다. 그러므로 공격자 측에서는 전투 개시 시각과 주공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정주성 전투 때 관군은 이러한 잇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였다. 공격일과 시각, 진영별 담당 지역을 한번 정하면 공격 당일에 비바람이 심하건, 폭설이 내리건 개의치 않고 예정 시각에 맞추어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종일 고전 끝에 날이 어두워지면 철수하는 양상을 되풀이하였다. 그때마다 관군 지휘부는 작전 실패의 이유를 악천후와 야음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는데, 패전의 가장 큰 원인은 사전에 이를 피하지 않았던 무리한 공격 명령이었던 것이다.<sup>78)</sup>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겪으면서 2개월간 소모적인 공격을 거듭하던 관군은 3월 이후 반군의 출성 공격에 대비한 수비 및 경계 태세 강화로 작전 방침을 바꾸었다.

조정에서도 단기간에 진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현지 지휘관을

78) 반군의 강력한 저항, 악천후와 야음이 관군 공격 실패의 중요한 이유였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격일시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을 감안하면 관군이 날씨가 나쁜 날에도 공격을 개시한 것은 작전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패전의 이유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관군 지휘부는 편안한 거처가 없이 야지에서 노숙해야 하는 병사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였다(『순무영등록』 임신 3월 2일). 그러나 병사들이 고생하면서도 전과가 없었던 것은 하루빨리 난을 진압하여 공을 세우려 한 지휘부의 과욕 때문이었다.

교체하는 등 현장의 자율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간섭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관군 지휘부가 속전속결을 고집한 것을 비판하기도 어렵다.<sup>79)</sup>

## 2) 정보 누설

관군이 성을 공격하면서 신무기라 할 수 있는 윤차를 동원하였으나 반군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와 작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 반군이 관군의 신무기나 장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사전에 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군은 관군 진영 내부와 주변 지역에 많은 첩자들을 심어놓고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관군은 이를 막지 못하였다. 첩자 뿐 아니라 관군의 행패로 피해를 입거나 불만을 품은 주변 지역 주민들도 관군의 동향을 반군 측에 적극적으로 알려 주는 등 협조하였다. 그 결과 관군의 공격 계획이나 준비 상황에 대한 정보는 거의 대부분 반군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반군은 수성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관군도 정보누설을 막기 위해 나름의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관군 주둔지의 수령들이 머무는 곳에는 이들을 수발하기 위한 통인이나 사령들도 함께 거처하고 있었는데, 반란의 중심 지역의 통인, 사령 등이 난에 적극 동조한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여 진영에 있던 통인이나 사령들을 현지로 돌려보냈다. 또 야간 통금을 엄격히 시행하였으며, 병사들이 유흥을 위해 여항에 외출하는 행위를 통제하였다. 이와 아울러 위장 귀순한 반군 첩자나 간첩들을 색출하려 노력하였

79) 현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언관들의 요구로 현장의 지휘관을 파면하고 신임 지휘관을 임명하여 내려보내는 현실이었으므로 일선의 지휘관들이 정주성을 신속히 점령하라고 병사들을 재촉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다. 정주성을 점령한 후에 포로들을 철저히 심문하여 난의 원인과 경과, 참여자들의 사정을 낱낱이 밝히려 하지 않고 즉시 모두 참살한 것도 이러한 조급함의 결과였다.

다. 그러나 최후의 공격이 임박한 1812년 4월 10일까지도 첩자 첩포 사례가 있었던 것을 보면<sup>80)</sup> 첩자들의 활동이나 정보의 누설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 3) 기도비닉(企圖秘匿) 실패

정주성 농성이 여러 날 지속되면서 반군도 피로가 누적되었고 야간 경계는 점점 어려워졌다. 그러므로 관군이 야음을 틈타 은밀히 성에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공격을 개시하면 반군 수비병들이 담당 장소에 투입되기 전에 성벽 위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관군은 은밀한 이동이나 공격 준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야간에 작전을 벌이면서 부대의 출발에서부터 병력의 이동과 성의 포위, 공격 개시 등 모든 과정을 드러내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812년 1월 15일 제 1차 공격작전의 경우였다.

관군은 아직 어두운 4경에 병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전투를 준비시키고 부대별로 이동을 시작하였다. 병사들은 새벽이 되기 전에 성벽 부근에 이르렀으나 이동을 시작할 때부터 북을 울리고 마구 총을 쏘면서 전진하였으므로 반군은 관군의 병력 규모와 이동 경로를 소상히 알 수 있었다. 관군은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려 노력하기는 커녕 스스로 노출시킨 셈이었다. 반군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비태세를 갖추 수 있었고 관군 병사들이 궁노와 조총의 유효 사거리 안에 접근할 때까지 은밀히 기다리고 있다가 일제 사격을 가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다.

공성전에서 포위한 쪽이 햇불이나 함성으로 자신들의 많은 병력과 높은 사기를 과시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을 포위한 청군이 그러하였다.<sup>81)</sup> 그러나 당시 청군은 야간에

80) 『서정일기』 임신 4월 10일. 이날 북병장은 관군의 상황을 탐지한 후 성으로 돌아가던 첩자를 체포하였다.

공격하면서 야음을 틈타 은밀히 접근하였으며, 청군 병력 일부가 성벽을 넘어 들어올 때까지 조선군 병사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sup>82)</sup> 이와 같이 야간 공격에서 기도비닉 유지는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주성을 공격한 관군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였다. 전투 실패 후에도 관군은 기도비닉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희생은 반복되었다.

#### 4) 화약 무기 운용 미숙

조선은 고려말부터 화약무기를 전투에 이용하였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소구경 개인화기인 조총이 보병의 기본 화기로 채택되었고 제작기술이나 사용 방법이 발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83)</sup> 홍경래란 당시 정주성 전투에서도 양측의 주력 무기는 활이 아니라 조총이었다.

조총은 활보다 명중률이 높으므로 공성전 공격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도열하여 성벽 위의 수비 시설과 병사들을 향해 집중 사격을 가하면 수비군은 머리카락이나 상체를 드러낸 채 상대편의 움직임을 관측하거나 사격을 하기 어렵다. 이 틈을 노려 공격측 병사들은 성벽 아래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사다리 등 도구를 이용하여 성벽 위까지 오를 수 있다. 실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은 조선군이 지키고 있는 성을 공격할 때에 먼저 조총 사격을 통해 조선군이 머리를

81) 『연려실기술』 권 25, 인조조 고사본말 <병자 노난(虜亂)과 정축항복> 병자년(1636) 12월 18일 “오랑캐 군사들이 성 가까이에서 밖으로 4.5리까지 에워싸고 곳곳마다 불을 피웠는데 밤이 되자 일부는 꺼지고 밤새도록 꺼지지 않는 것도 있었다(胡兵環伏近城外四五里 處處燃火夜分乃滅 或達夜不滅)”.

82) 『연려실기술』 권 25, 인조조 고사본말 <병자 노난(虜亂)과 정축 항복> 정축년(1637) 1월 23일 “삼경에 적이 서쪽 성을 침범하였다. 수어군관 송의영이 눈 밝은 소리에 잠에서 놀라 깨니 적은 이미 사다리를 기어오르고 있었다(三更賊犯西城 守禦軍官宋義榮 聞踏雪聲 睡裡驚起 賊已登梯).”

83) 강석화, “17,18세기 조선의 청 군사 기술 수용”, 『조선시대사학보』 67(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13: 333-337.

들지 못하게 한 후 성벽 아래에 쇄도하여 나무나 짚단을 쌓아 발판으로 삼고 성으로 진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sup>84)</sup> 그러나 이러한 전훈은 정주성 전투에서 구현되지 못하였다. 총공격을 벌일 때 관군 병사들은 통제받지 않고 조총 사격을 남발하였으며, 특정 목표나 성첩 주위를 향한 집중 사격을 통해 반군 수비병들을 견제하거나 고착시키지 못하였다. 북문을 향한 굴토 작업 진행 중에 성벽 위에 있는 반군의 관측을 방해하고 견제하기 위해 조총으로 사격한 일도 있었으나<sup>85)</sup> 드문 경우였다. 전면 공격을 벌이면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조총 부대를 운용한 경우가 없었던 것이다.

관군 조총부대의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812년 3월 20일 반군의 출성 전투에서는 관군 포수들의 사격을 이기지 못한 반군들이 패퇴하였다. 공성전이 아닌 야전에서는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성전에서 조총부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관군 지휘부의 운용 능력 부족 때문이었다.

관군 지휘부는 대구경 화포의 특성이나 운용 능력도 충분하지 않았다. 관군은 천자포나 대완구 등 당시 이용할 수 있는 대구경 화포를 사용하였으나, 성 안으로 포탄을 날려 보내 건물을 파괴하거나 작렬탄으로 인명을 살상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전투 초기에는

84) 『유성룡의 산성론』 “(왜인들은) 성을 포위할 때에 먼저 성첩의 높이와 참호의 깊이를 둘러보고 나서 수천 자루의 조총으로 성을 향해 마구 쏘아대니 성 안에서는 엷드려 기어다니느라고 고개를 못드는데 더구나 이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이럴 때 다른 적들은 이 기세를 타고 곧장 진격하여 나무·돌·짚단 따위를 마구 집어 던져 호를 매우면 그 높이가 성과 같게 되므로 순식간에 성이 함락된다. 임진년에 김해성을 함락한 것이나 정유년에 남원성(南原城)을 함락시킨 것이 모두 이런 방법[術]으로 한 것이었다(凡圍城。必先環視城堞高卑。壕塹淺深。數千鳥銃向城亂放。城內守卒方且鼠伏膝行。不敢出頭。況敢禦之耶。他賊乘勢直進。以木石草束亂投填壕。高與城齊。頃刻陷城。壬辰之陷金海。丁酉之陷南原。皆用此術。).”(『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편 4 관방 관방총론)

85) 『서정일기』 임신 4월 5일, 4월 11일.

천자포나 완구포로 성첩을 파손한 경우도 있었으나 계속해서 화포를 집중 운용하거나 특정 목표에 대해 집중 사격을 가하여 성첩을 파괴하거나 성벽을 무너뜨리려 시도는 없었다. 화포 공격의 성첩 파괴 효과를 보고도 후속 공격을 계속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관군은 대표적인 공성용 화기라 할 수 있는 홍이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홍이포의 포탄은 인마살상용 작렬탄은 아니다. 그러나 탄자의 속도가 빨라 파괴력이 크므로 성첩이나 성벽, 성내의 각종 시설물 파괴에 효과적이다.

병자호란 때 조선은 청군의 홍이포 때문에 남한산성 전투에서는 성첩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고, 강화도 전투에서는 기선을 제압당했다.<sup>86)</sup> 홍이포의 파괴력을 경험한 조선은 이를 갖추려 하였고 영조 때에는 2문을 제작하여 훈련도감에 비치하였다.<sup>87)</sup> 그러므로 홍이포는 농성전을 벌이는 반군 진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화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순무영 본영의 책임자들이나 현지 지휘관들 중 누구도 홍이포의 필요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남한산성의 교련관과 별파진 병력을 차출하고 천자포와 완구포를 이동시켜 현장에서 사용하였으나, 그보다 더 우수한 공성 무기라 할 수 있는

86) 『연려실기술』 권 25, 인조조 고사본말 <병자 노란(虜亂)과 정축 항복> “(1627년 1월 25일) 적의 포탄이 망월대에 맞아 대장기가 꺾어지고, 또 잇달아 성첩에 맞아 한 귀퉁이가 거의 다 파괴되어 성가퀴는 이미 엄폐물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賊大砲中望月臺 大將旗柱折 又連中城堞 一隅幾盡破壞 女牆則已無所蔽).”

『연려실기술』 권 26, 인조조 고사본말 <강화도가 함락되다(江都敗沒)> “청군이 나루터 앞에 모여들어 홍이포를 발사하니 포탄이 강을 몇 리까지 넘어 날아왔다.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고 부숴버리지 않는 것이 없었다. 김경징과 이민구가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창고 건물 바닥으로 피하였으며 군사들이 모두 혼란에 빠져 대오를 이루지 못하였다(賊兵屯聚津頭 放紅夷大砲 砲丸越江渡陸數里 聲震天地 莫不催爛 慶徵敏求 懼恟失措 乃避于倉舍之底 一軍擾亂 不成行列)

87) 『영조실록』 권 30, 영조 7년(1731) 9월 21일 신사.

홍이포의 구조 및 보관에 대해서는 강석화, 앞의 논문: 345, 참조.

1808년(순조 8)에 완성된 『만기요람』 에는 영조대 제작된 홍이포 2문이 훈련도감에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만기요람』 군정편 2, 훈련도감 군기조).

홍이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것이다. 훈련도감 군기고에 비치되어 있는 홍이포의 존재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야말로 관군 지휘부의 무능함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다.<sup>88)</sup>

## 나. 반군의 강점

### 1) 지휘 통제 능력

정주성 공방전 당시 반군의 역량 가운데 가장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사격 통제 능력이었다. 관군이 성으로 진입하기 위해 접근할 때마다 반군은 깃발도 눕혀놓고 북도 울리지 않으면서 조용히 대기하다가 관군 공격부대가 지근거리에 도달하면 일제 사격을 가하여 관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sup>89)</sup> 반군 수비병들은 경계 근무시에는 관군측 인사가 성에서 30보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을 하여 접근을 막았고 1812년 2월 3일의 전투에서는 관군이 50보까지 접근하자 사격을 시작하였다. 반군이 사격을 개시하는 시점이나 거리는 전투 때마다 일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90)</sup> 그러나 압도적인 기세로 밀려오는 공격부대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수비 위치를 이탈하거나 명령에 앞서 산발적으로 사격을 개시하지 않았다. 반군 지휘부와 하급 간부들이 병사들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일사분란하게 통제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반군은 전투 때마다 초기의 일제 사격으로 쉽게 승기를 잡았고 성첩 위에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은폐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개활지에서 반군의 사격에 노출된 관군은 많은 피해를 입은 채 물러나야만 했다.

기선을 제압당한 관군은 공격보다는 사상자 수습과 개인 엄폐에

88) 19세기 초에 훈련도감에 있던 홍이포는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낡거나 파손된 것이었으므로 관군 지휘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89) 『서정일기』 임신 1월 18일.

90) 『서정일기』 임신 2월 3일.

급급하였고 조직적으로 전투를 전개할 수도 없었다. 관군은 병사 개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장전과 사격을 되풀이하였고 지휘관의 통제에 따른 일제 사격이나 엄폐를 하지 못하였다.

## 2)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어시설 운영

반군은 성벽과 성문 주위의 관군 예상 접근로에 마름쇠(능철)를 산포하여 관군의 진격을 방해하고,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관군의 공격 도구나 공격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이용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반군의 병사들은 주로 성첩에 의지해 사격하였으나, 전적으로 이러한 시설에만 기대지는 않았다. 반군은 성벽 위에 엄폐용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일제 사격 후 다음 사격을 준비하는 동안 관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91)</sup>

반군은 성벽 위에 흙을 추가로 쌓고 물을 부어 얼려 튼튼하게 보강하였으며<sup>92)</sup>, 1812년 2월 25일 전투에서는 장대에 큰 돌을 단 무기를 이용하여 관군의 운차를 쉽게 파괴하였다. 반군이 제한된 여건에서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어체계를 운영한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 3) 체계적인 수성군 편성

농성기간 동안 정주성 내에 있던 인원의 총수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무리 늘려잡아도 4천 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93)</sup> 이

91) 반군이 성첩에만 의존하지 않고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은 관군의 화포 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군이 이용한 화포의 파괴력이 강하지 않았다 해도 석축이 아닌 성첩 방어시설은 완구포탄이나 대장군전을 맞아 파손된 경우도 있었다.

92) 『서정일기』 임신 1월 18일.

93) 농성기간 동안 정주성 안에 있던 인원의 총수는 자료마다 다르다. 정주성 점령 후 생포한 인원 총수가 2,983명이었던 기록(『순무영등록』 5책, 임신 4월 23일 양서 순무 선봉 유효원의 보고)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차례 전투를 겪으면서 줄

가운데 남정은 3천 명 정도인데, 반란 초기부터 참여한 봉기군의 주력이 1천여 명, 성내 원주민과 주변 지역의 입거민이 합하여 2천 명 정도였다. 반군 지휘부 중 홍경래는 전투 경험이 있고 충성심이 강한 주력군의 절반을 직접 거느리고 서장대 부근에 주둔하였고, 나머지 절반의 병력은 북문과 북장대 일대에 배치하였다. 아울러 민간인 중에서 장정들을 징발하여 수성군으로 편성하였다. 봉기 초부터 가담한 인원들을 조장이나 지휘자로 삼고 각 조마다 5~7명 정도의 일반 장정들을 묶어서 하나의 수비조를 이루도록 하였다.<sup>94)</sup> 강제로 수비조에 편성된 인원들 중에서는 장기간의 농성에 염증을 느끼거나 억지로 반군에 연루된 사실을 꺼려 성을 벗어나 관군측에 귀순할 것을 도모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들도 있었으나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수비군 편성 방식과 철저한 상호 감시 체제가 잘 작동했던 것이다. 반군은 반란 가담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이 확보한 인적 자원을 적절히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1811년 12월 29일부터 1812년 4월 19일까지 전개된 정주성 공방전의 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드러난 관군과 반군의 역량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정주성 전투는 초기의 상호 전력 탐색 기간, 관군이 총공세를 편 시기, 반군이 퇴로를 찾기 위해 출성 공격을 시도하던 시기, 관군이 굴을 파 화약을 묻고 성벽을 폭파하고 후 진입하여 반란을 종식시킨 시기

어든 인원수를 감안하여 농성에 참여한 인원의 수를 대략 4천 정도로 추정하였다.  
94) 포로 정주 출신 명신청의 공술(『평란록』 권 15, 임신 2월 11일, 『관서평란록』 v.4, p.219)

등으로 나누어진다.

총공격을 펼치면서 관군은 윤차리는 신무기를 이용하여 성을 공격하였으나, 반군 역시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윤차를 파괴하였다. 오랜 포위 때문에 식량과 무기가 부족해진 반군은 과감한 출성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오랫동안 반군이 항복하지 않고 버티자 관군은 성벽을 폭파한 후 진입하여 생존한 인원들을 모두 생포하였다. 관군은 이들 중 여성과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성인 남성 1,917명을 전부 처형하였다.

관군의 지휘부는 몇몇 예외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투 지휘나 군사 역량 발휘에 무능하였고, 병사들의 전투력 역시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정주성을 공략하여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던 것은 애초부터 비교하기 어려운 전력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관군에 대한 전국적인 지원, 평안도 지역의 인적·물적 지원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이에 비해 반군은 고립무원의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방어도구와 시설을 적절히 이용하여 관군의 공격을 번번이 무산시켰으며 여러 차례 출성 공격을 감행하여 관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관군은 야간에 전투를 시작하면서 공격 기도를 감추지 못하였고 공성도구는 정교함이나 견고성이 떨어져 쓸모가 없었으며, 한양의 훈련도감이 보관하고 있는 홍이포를 사용하여 반군을 공격하지도 않았다. 관군이 자신들의 역량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없어 고전을 면하지 못한 것에 비해, 반군은 식량과 무기 부족으로 결국 실패가 예정된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방어 도구를 개발하여 이용하면서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 성을 지켜내었다. 관군이 결국 성을 점령하였으나 관군의 승리라 하기는 어렵고 이미 자멸한 반군의 마지막 숨을 끊은 것이었다.

본 연구는 홍경래란이나 전주성 전투에 관해 새로운 사실을 규명

하기 보다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군사적 관점에 입각한 접근과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는 홍경래란의 성격에 대해 새로운 관점의 해석을 시도한 것은 아니며 종합적 이해를 위한 실증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1차 사료

『관서평란록』, 『동여도(東輿圖)』, 『만기요람』,  
『무비지(武備志)』, 『서정일기』, 『순조실록』,  
『연려실기술』, 『정주목읍지(定州牧邑誌)』, 『진중일기』,  
『정주지도(定州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소장, 奎 10568)

### 2. 단행본 및 논문

- 강석화, “17,18세기 조선의 청 군사 기술 수용”, 『조선시대사학보』 67(서울, 조선시대사학회), 2013: 333-337  
<http://uci.or.kr//G704-000303.2013..67.008>
-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 사회 연구 - 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http://uci.or.kr//G901:A-0008480577>
- 김선주, 『조선의 변방과 변란, 1812년 홍경래란』 (서울, 푸른역사, 2020)
- 노영구, “정조대 병서 간행의 배경과 추이”, 『장서각』 3(2000)
- 오수창, 『조선 후기 평안도 사회 발전 연구』 (서울, 일조각, 2002)  
<http://uci.or.kr//G901:A-0006021253>
- 이병도, “홍경래란과 정주성도” 『백산학보』 3(서울, 백산학회, 1967): 381-400
- 이왕무, “홍경래란의 진압과정”(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편, 『한국군사사』 8-조선후기Ⅱ-, 서울, 경인문화사): 395-428.  
<http://uci.or.kr//G901:A-0006416746>
- 정석종, “홍경래란” 『창작과 비평』 7(3)(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2): 620-680

정석중, “홍경래란의 성격” 『한국사연구』 7(서울, 한국사연구회, 1972):  
151-206

정석중, “홍경래란” 『전통시대의 민중운동』 풀빛(1981): 259-315

(Abstract)

## A Study on the Progress for the Jungju Castle Battle occurred in 1812 and the Comparison of the Capabilities of the Government Forces with the Rebel Armies

Kang, Seok-hwa

Hong Gyeong-rae's rebellion began in December 18th, 1811 and ended April 19th, 1812 during the middle age of Joseon Dynasty. Jeongju castle was besieged from December 29th, 1811 to April 19th, 1812, so the most part of the Hong Gyeong-rae's rebellion was the battle of Jeongju castl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whole stages of the battle of Jeongju castle and compared capabilities of the government forces with the rebel armies.

During the general attack, while the government forces used a new weapon called Yooncha(mobile carrier loaded with attack weapon), however, the rebels destroyed it with a new tool. As the long lasting siege exhausted their supplies such as food and weapons etc., the rebels dared to try advancing out of their castle only to fail. Because the rebels determined not to surrender for a long time, the government forces exploded the castle wall and captured those who survived. And then, except women and children, all of men participated in the rebellion, in total 1,917 ones were executed.

With almost incompetent officers, the command center of the government forces could not give orders and make strategies, nor did it have enough combat powers including manning. The government forces could not hide sign of attack even in night and their siege weapons were useless without precision and endurance. They did not even use Hong'ipo to attack the rebels which was stored in Hullyeondogam(Central Army) located in Hanyang. But the rebels, acknowledging that they would fail by the lack of food and weapons,

protected the castle by inventing and using effective defensive equipment until the end. The occupation of the castle was not the result of government forces' victory, but the result of extinction of the rebels.

This study focuses to review and analyze Hong Gyeong-rae's rebellion and the battle of Jeongju castle by military perspectives which were not researched in former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is a part a proof to understand Hong Gyeong-rae's rebellion in total.

Keywords : Hong Gyeong-rae's rebellion, Siege of Jeongju, Pyeongan province, rebellion, Yooncha(輪車), matchlock, cannon, earthwork, blasting operation